

油價調整의 背景과 內容

— 動力資源部 —

I. 油價調整의 背景과 內容

지난 10월29일 제61차 OPEC (石油輸出国機構) 특별각료회의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原油輸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油價가 10월 1日字로 소급하여 배럴당 2달러가 인상되고, 또 그동안의 換率상승과 유전스利率 상승으로 原油導入金融費와 精製費가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부득이 11월 29일 0 시를 기해 石油製品價格을 공장도가격으로는 평균 6%, 소비자가격 기준으로는 평균 5.7%를 각각 인상키로 하였다.

II. 調整原則과 要因

이번 石油類價格 조정의 원칙은 越冬期の 에너지 충격을 최소화하여 國民生活의 안정을 기하고, 國內物價의 안정기조를 견지하기 위해 인상요인을 최소한으로 반영했다.

이를 주요要因別로 보면, 첫째로 제61차 OPEC 特別閣僚會議에서 油價單一化가 합의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複合平均單價는 종전의 배럴당 33.44달러에서 33.77달러로 인상되었으며, 價格決定의 기초가 되는 最低導入社의 原油價도 종전의 31.44달러에서 32.92달러로 인상됨에 따라 安定基金을 다소 인하하고서도 우리나라 石油類製品價의 0.7% 인상요인을 안게 되었다.

둘째로, 換率은 油價決定時에 原油價상승과 통일한 작용을 하는 바 지난 4月の 油價調整時에는 달러당 6백77원80전이었던 것이 11월 13일 현재에는 6백90원으로 상승되어 1.6%의 油價引上要因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셋째로 原油去來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유전스去來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유전스利率이 지난번 油價引上時에는 14.5%이던 것이 그동안 19%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다시 安定勢를 되찾고 있지만, 그동안의 국제적인 高金利현상에 따른 金融費用의 증가등으로 原油導入金融費 및 精製費가 종전의 배럴당 3천7백43원에서 4천5백18원으로 상승됨에 따라 2.5%의 인상요인을 안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產油國의 가격인상과 減產危脅에 처하기 위해 86년도에 정부 비축 60日分을 목표로 備蓄施設을 추진중에 있다. 지금까지는 石油輸入時 배럴당 1달러를 초과하여 비축시설을 하는데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비축시설의 확장과 함께 完工된 시설에는 原油를 구입하여 실제로 비축하여야 하기 때문에 또 다시 추가로 배럴당 1달러의 備蓄基金 징수가 불가피해 졌다.

그러나 越冬期の 油價引上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는 배럴당 50센트만을 備蓄基金으로 징수하고 나머지 50센트는 다음 기회에 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에 추가로 징수하는 備蓄基金 50센트가 油價引上에는 1.2%로 작용하게 되었다.

